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새내기들 중앙경찰학교 견학

박대항 기자 승인 2024.04.04 15:02 15면

매년 10명 내외의 경찰공무원 최종 합격학교로 다양한 체험 추진
경찰교육 선배 모며 의욕고취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3년제) 신입생들이 경찰의 본연임무 및 과학수사 기법 등을 더욱 알차게 연수하기 위해 충주 소재 국립중앙경찰학교를 다녀왔다.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제공

[청양]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3년제) 신입생들이 경찰의 본연임무 및 과학수사 기법 등을 더욱 알차게 연수하기 위해 충주 소재 국립중앙경찰학교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국립중앙경찰학교내의 학식으로 점심을 마친 후 작년 하반기 시험에 합격해 교육받고 있는 6명의 선배들과의 만남 시간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한편, 중앙경찰학교의 교수진으로부터 수갑을 이용한 체포술과 위조지폐 감별 및 유전자를 이용한 과학수사 기법을 체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18기 신입생 이혜민 양은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요. 학식도 맛있고 제복 입은 선배들의 모습도 멋있고 부럽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행정학과의 곽영길 교수는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중앙경찰학교 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총장의 적극적 지원 등에 힘입어 소규모 학과임에도 매년 10명 내외의 경찰공무원 최종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충남권의 대표적인 경찰공무원 양성학과로 이름이 나 있다. 2024년 상반기 1차 시험에서도 6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상태이다.



박대항 기자 pdh4112@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